

牧隱 李穡의 漢詩에 나타난 陶淵明의 隱逸觀

金周淳*

<차 례>

1. 序言
2. 隱逸의 概念
3. 陶淵明의 隱逸觀과 牧隱의 出處觀
4. 牧隱의 漢詩에 나타난 陶淵明 隱逸觀
5. 結語

<국문초록>

도연명은 彭澤승이라는 낮은 小官吏로서 당시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부정부패가 만연된 사회에서 녹을 받고 사는 것은 선비의 처신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성품과 어긋난 벼슬길을 떠나 “천하에 도가 있으면 벼슬하고, 도가 없으면 물러나 숨는다. (天下有道則見, 無道則隱.) 『論語·泰伯篇』” “달통하면 나서서 천하를 구제하고 막히면 할 수 없이 물러나 자신을 착하게 한다. (達則兼善天下, 窮則獨善其身.) 『孟子盡·心上篇』”라는 儒家의 가르침인 隱逸觀에 의해 전원으로 歸去來하여 詩酒로써 자연을 벗 삼아 몸소 논밭을 경작하고, 전임 지방의 小官吏로서 주위 농민들에게 농사를 권장하는 勸農詩를 지으며, 田園閑居 하였다.

牧隱 李穡이 살았던 시대는 중국에서는 元나라를 이어 明나라가 들어서고, 우리나라에서는 高麗와 朝鮮의 易姓革命이 이루어진 역사적 전환기였다. 이 시기에 李穡은 정치적·사상적·문학적으로 고려 말기를 대표하는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인물이었으며, 이 땅에 性理學의 뿌리를 내린 고려 儒學의 으뜸으로서 麗末·

* 대구가톨릭대학교

鮮初 유학사상의 커다란 흐름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李成桂가 위화도 回軍 후 그는 門下侍中이 되어 “삶도 내가 원하는 바요, 의도 내가 원하는 바이지만,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얻을 수 없을 진댄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하겠다. (生, 亦我所欲也. 義, 亦我所欲也. 二者不可得兼. 舍生而取義者也.) 『孟子·告子上篇』”라는 儒家의 가르침인 出處觀에 의해 禡王과 昌王을 등극시키는 데 큰 공로를 하였고, 明의 도움을 받아 이성계를 퇴출시켜 고려의 왕권을 수호하고자 하였지만, 오히려 역부족으로 이성계의 세력에 의해 배척을 받아 유배생활을 하였다. 李穡이 고려 왕실의 충성스런 신하임을 표명하고 이성계 일당과 손을 잡지 않은 것은 도연명이 東晉의 충신 집안 子孫으로서 劉宋이 들어서자 晉代의 忠節을 나타내기 위해 그가 써 오던 ‘晉代年號’를 ‘甲子題詩’하고, 그의 마지막 벼슬인 彭澤丞을 사직한 후에는 劉宋의 조정에서 벼슬을 주어 불러도 다시는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田園歸居한 도연명의 忠義와 節操에 비길 수 있다.

兩人은 일천 년이라는 공시적 시대 차이가 있고, 서로 다른 국가의 정치·사회 현실의 통시적 정황에서 도연명은 자신의 신분에 적합한 儒家의 가르침인 隱逸觀으로 歸去來하였고, 목은 이색은 門下侍中의 높은 벼슬의 위치에서 고려 왕실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로써 도연명의 인품과 생활을 흠모하며 儒家의 가르침에 의한 出處觀을 실행하였다.

결국 兩人의 隱逸觀과 出處觀은 道家思想이나 佛家思想에 의해 성립된 것이 아니라, 儒家思想에 바탕을 두었다는 점에서 兩人의 同質性을 발견할 수 있다.

핵심어 : 隱逸觀, 歸去來, 詩酒, 勸農詩, 田園歸居, 易姓革命, 出處觀, 甲子題詩

1. 序言

李穡(1328~1396)은 字가 穎叔이고, 號는 牧隱이며, 諡號는 文靖이다. 그는 稼亨 李穀의 아들로 태어나서 14세에 進士¹⁾가 되고, 父親 李穀이 元

나라에서 中端司典簿로 재직함에 따라 朝官의 자체로서 國子監 生員이 되었다. 그는 중국에 체류하는 3년 동안 학교에서 淵源있는 학문을 받아들여 깊이 심취하였고, 性理學에 관한 글에 더욱 조예가 깊었다.²⁾ 그 뒤 귀국하여 1353년 (恭愍王 2) 鄉試에 1등으로 합격, 書狀官으로서 다시 元나라로 들어가 1354년 會試 · 殿試에 급제하여 元의 翰林院에 등용되었다. 1356년 귀국하여서는 藝文館大提學 · 成均館大司成 등을 역임하다가 1373년에 韓山府院君으로 봉해지고, 이듬해 병으로 관직에서 물러났다. 1375년 禡王의 청으로 다시 관직에 나와 1377년 禡王의 師傅가 되었다. 1389년 (恭讓王 1)에는 李成桂의 위화도 回軍 후 昌王의 등극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崔瑩이 물러난 자리인 門下侍中의 자리에 올랐다. 그는 明의 힘을 빌어 李成桂의 세력을 견제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에 의해 유배되었다가 1392년 7월에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되자 10월에 석방되었다. 그 후 隱逸하여 杜門不出하던 중에 1395년에 李成桂의 出仕 宗용이 있었다. 그러나 이색은 끝내 “이 늙은 사람은 앓을 자리가 없구료. (老夫無坐處)”³⁾라는 말로 거절하고, 1396년에 驪江에서 피서 중에 69세의 일기로 배 안에서 죽었다. 그의 저서로는 『牧隱文藁』와 『牧隱詩藁』가 전한다.

本稿는 牧隱 李穡의 漢詩에 나타난 도연명의 隱逸觀을 探討함에 있어 도연명의 隱逸觀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이색이 도연명의 인품과 생활에 대하여 어떻게 동경하였는지를 알아보고, 당시 李穡의 出處觀은 도연명의 歸去來 의식과 외면상에서 달리 나타났지만, 兩人的 隱逸觀과 出處觀은 同質性이 있음을 비교문학적인 관점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1) 『高麗史·列傳』第28, 「李穡」: “年十四 中成均試已有聲.”

2) 權近, 「牧隱行狀」: “以朝官子, 補國子監生員, 在學三年, 得受中國淵源之學, 切磨涵漬, 益大以進, 尤邃於性理之書.”

3) 『高麗史·列傳』第28, 「李穡」, 權近, 「牧隱行狀」.

4) M.F. 기야르 著, 全圭泰 譯, 『比較文學』序, 서울: 正音社, 1979, 8쪽.: “비교문학이란 비교가 아니다. 이것은 부당하게 이름 지어진 과학적 방법의 한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국제간의 문학적 관계의 역사’라고 정의한다면 그 편이 훨씬 정확할 것이다.”

2. 隱逸의 概念

‘隱’은 ‘숨는다’ ‘숨기다’라는 뜻으로 ‘顯’의 반대어이다. 원래 ‘隱’은 道家的 觀念에서 나온 것이지만, 儒家에서는 ‘隱’의 觀念을 “천하에 도가 있으면 벼슬하고, 도가 없으면 물러나 숨는다. (天下有道則見, 無道則隱.)”⁵⁾

“달통하면 나서서 천하를 구제하고, 막히면 할 수 없이 물러나 자신을 착하게 한다. (達則兼善天下, 窮則獨善其身.)”⁶⁾이라는 의미로써 활용하였다.

‘逸’은 원래 토끼(兔)가 ‘달아난다’로 쓰였으나, ‘잃는다’ ‘즐긴다’ ‘편안하다’ ‘놓아준다’ ‘뛰어나다’ ‘빠르다’등의 뜻이 있고, 『論語·微子篇』에 “은일자로는 伯夷·叔齊·虞仲·夷逸·朱張·柳下惠·少連이다. (逸民, 伯夷·叔齊·虞仲·夷逸·朱張·柳下惠·少連)”라는 글귀가 있어 ‘숨는다’라는 뜻도 있다.

이렇게 ‘隱’과 ‘逸’은 처음에는 각각 다른 뜻으로 사용되다가 ‘隱逸’로 함께 쓰인 例⁷⁾는 漢 以後에 나타나 『後漢書』의 「台佟傳」에서 “마침내 가서 은일하더니, 끝내는 나타나지 않았다. (遂去隱逸終不見)”라는 기록이 있어 ‘隱’과 ‘逸’이 함께 쓰여 ‘숨는다’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하였다.

正史에는 『後漢書』에 ‘逸民傳’이라는 말이 보이다가 『晉書』·『宋書』·『隋書』·『南史』·『北史』·『舊唐書』·『唐書』·『宋史』·『金史』·『元史』·『明史』에서는 모두 ‘隱逸傳’이란 말로 바뀌었다.

隱逸을 주제로 삼은 최초의 시는 『詩經』의 「衛風·考槃篇」과 「陣風·衡門篇」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두 작품은 賢者의 은거생활을 묘사하였다. 『楚辭』에는 「招隱士」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의 내용은 隱士에게 은거생활을 그만 두고 속세로 나올 것을 권유하는 의미로 쓰였다. 이들 『詩經』과 『楚辭』에 나오는 隱逸詩는 은거생활에 대한 단순한 묘사이거나, 산

5) 『論語·泰伯篇』.

6) 『孟子·盡心上篇』.

7) 『漢書·何武傳』에 “行有茂異, 民有隱逸”라는 기록이 보이고, 『後漢書·岑彭傳』에 “曾孫杞, 遷魏郡太守, 招聘隱逸, 與參政事, 無爲而化”라는 기록이 있다.

속에서의 은거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읊은 것으로써 진정한 隱逸詩로서의 가치 있는 작품은 아니다. 그러다가 東漢 末에 와서 張衡(78~139)이 「歸田賦」를 지어 은일의 의미를 현실화시켰다.

張衡의 「歸田賦」는 그가 벼슬하여 뜻을 얻지 못하자 농촌으로 돌아가 歸田하고자 하는 뜻을 읊었다. 그리고 그의 隱居地를 배경으로 산수자연의 아름다운 정경을 묘사하여 은거생활의 정취를 드높이는데 중시하여 묘사하였다.

그 후에 山水自然을 읊은 謝靈運(385~433)의 山水詩가 출현하였지만, 謝靈運의 山水詩는 전원의 情景를 감상하는데 그쳤을 뿐이다. 전원의 활발한 정취를 생동감 있게 眞情으로 묘사하여 生命의 힘이 솟구치는 田園美를 읊은 시인은 陶淵明이다. 도연명의 田園詩는 다른 隱士들의 전원시와는 달리 전원에서 그가 몸소 체험한 農耕생활을 바탕으로 ‘참성정·참생명’의 시를 읊었기에 우리로 하여금 깊은 감동을 준다. 이에 齊·梁代의 詩文 비평가인 鍾嶸(?~552)은 도연명을 “고금 은일시인의 으뜸”⁸⁾이라고 칭송하였다.

隱逸人과 隱逸觀은 왜 발생하였는지의 원인을 살펴보면, 그 시대의 정치·사회의 혼란상과 깊은 관계가 있다.

중국에서 隱逸人으로 보는 최초의 인물로 巢父와 許由의 故事를 들 수 있는데, 堯임금이 巢父에게 왕위를 부여한다는 말을 듣자 巢父는 듣지 못할 말을 들었다 하여 냇물에 가서 귀를 씻었다. 이때 소에게 물을 먹이려 온 동생 許由는 듣지 못할 소리를 들어 귀를 씻은 더러운 냇물에서는 자기의 소에게 물을 먹일 수 없다고 하여 소를 끌고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또한 伯夷·叔齊의 故事로써 周武王이 君臣關係를 저버리고 殷을 치러 가는 도중에 신하로써 殷을 치는 것은 君臣의 도리가 아니라고 伯夷·叔齊가 周武王의 말고삐를 잡고 간곡히 만류하였으나 듣지 않자, 周나라에서 나는 곡식은 먹지 않겠다며 首陽山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어 먹

8) 鍾嶸, 『詩品』, “古今隱逸詩人之宗也.”

고 살다가 굶어죽은 이야기가 전한다. 그리고 秦나라 말년에 戰亂을 피하여 陝西省 商山에서 은거한 商山四皓, 魏晉時代의 정치·사회 혼란기에 竹林으로 들어가 老莊思想에 의한 음주시를 읊으며 은일한 竹林七賢, 晉·宋年間에 儒家 본연의 깨끗한 자태로 田園으로 歸去來하여 자연을 벗삼아 詩酒로써 田園閑居를 읊으며 은일한 陶淵明 등은 중국의 대표적인 隱逸人들로 일컫는다.

우리나라에는 신라시대에 敬順王이 千年社稷을 고려 王建에게 바치자 금강산에 들어가 벼을 입고 취를 캐먹으며 은일한 麻衣太子가 있고, 高麗時代에 武臣政權이 들어서자 당시 문인들로서 竹林에 들어가 중국의 竹林七賢처럼 詩酒로 생활한 李仁老를 비롯한 竹林高僧, 그리고 고려 말에 와서 자신의 호를 ‘隱’으로 삼아 은일을 실천하고자 했던 陶隱·圃隱·牧隱·野隱이 있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정치적 격동시대에 살면서 出仕와 隱退를 20여 회 반복하며 마침내는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은거한 退溪 李滉, 높은 학문을 가지고 있으면서 벼슬에는 뜻을 두지 않고 지리산에 은거하여 후진 교육에만 힘쓴 南冥 曹植은 조선을 대표하는 은일자라고 말할 수 있다.

3. 陶淵明의 隱逸觀과 牧隱의 出處觀

3.1 陶淵明의 隱逸觀

陶淵明의 傳記는 『宋書·隱逸傳』·『晉書·隱逸傳』·『南史·隱逸傳』·『蓮社·高賢傳』 등에서 보이고, 특히 도연명이 살아 있을 때 절친한 친구였던 顏延之(384~456)의 「陶徵士誄」와 梁의 昭明太子 蕭統(501~531)이 지은 「陶淵明傳」의 序文이 중요한 기록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도연명 자신이 그의 자서전처럼 쓴 「五柳先生傳」을 소홀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陶淵明(365~427)은 晉宋年間에 활동했던 시인으로 劉宋이 들어서자

이름을 潛이라 고쳤고, 字는 元亮이며, 號는 五柳先生 또는 靖節先生이라고 한다. 그의 曾祖父는 晉의 大司馬를 역임한 陶侃이고, 外祖父는 당시에 風流客으로서 이름이 높았던 孟嘉였다.

도연명은 江西省 九江市 潯陽縣 柴桑이라는 마을에서 출생하여 家塾으로 학문에 정진하였으며, 그의 조국에 대한 충절과 도연히 술에 취해 속세를 해탈하며 “동쪽 울타리 밑에서 국화를 따니, 유연히 남산이 눈에 들어오네. (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⁹⁾ 라는 시구를 읊는 은일의 풍류 자태는 바로 名宰相인 증조부와 墨客이었던 외조부로부터 이어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도연명의 시를 보면, “어려서부터 세속에 어울리지 못하고, 성품이 본시 산을 사랑했거늘. (少無適俗韻, 性本愛邱山.)”¹⁰⁾ “어려서부터 속세의 일을 멀리하고, 오직 육경을 배웠다. (少年罕人事, 游好在六經.)”¹¹⁾ “어려서부터 저속한 일을 도외시 하고 뜻을 책과 거문고에 두고 헤어진 옷을 걸치고도 자득했고, 식량이 떨어져도 태연했노라. (弱齡寄事外, 委懷在琴書. 被褐欣自得, 屢空常晏如.)”¹²⁾ “쟁기를 들고 철따라 즐겁게 농사를 짓고 미소 지으며, 농군들에게 격려를 한다. …… 해가 지면 함께 돌아와 술을 마시며 이웃과 피로를 푼다. 사립문 닫고 시를 읊으며, 농민생활 즐기리. (秉耒歡時務, 解顏勸農人. …… 日入相與歸, 壺漿勞近鄰. 長吟掩柴門, 聊爲隴畝民.)”¹³⁾라고 읊었듯이 그의 천성은 자연을 좋아하고, 벼슬길과는 맞지 않은 성품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가 어린 시절에 읊은 다른 시를 보면, “돌이켜 보건대 어려서 나는 속세의 낙이 없어도 혼자 흥겨웠고, 세찬 뜻을 사해에 떨치어 내고, 날개를 펴고 멀리 날고자 했다. (憶我少壯時, 無樂自欣豫, 猛志逸四海, 奮翮思遠翥)”¹⁴⁾ “젊어서 세차고 억

9) 陶潛 撰, 陶澍 注, 『靖節先生集』卷三, 「飲酒其五」.

10) 陶潛 撰, 陶澍 注, 『靖節先生集』卷二, 「歸園田居其一」.

11) 陶潛 撰, 陶澍 注, 『靖節先生集』卷三, 「飲酒其十六」.

12) 陶潛 撰, 陶澍 注, 『靖節先生集』卷三, 「始作鎮軍參軍經曲阿作」.

13) 陶潛 撰, 陶澍 注, 『靖節先生集』卷三, 「癸卯歲始春懷古田舍其二」.

14) 陶潛 撰, 陶澍 注, 『靖節先生集』卷四, 「雜詩其五」.

센노라, 칼을 차고 멀리 갔노라. 장액에서 유주까지 들었노라. 굶주리면 백이와 숙제처럼 수양산에 가서 고사리 따서 먹고, 목마르면 형가처럼 이수의 강물을 마셨노라. (少時壯且厲 撫劍獨行遊. 誰言行遊近, 張掖至幽州. 飢食首陽薇, 渴飲易水流.)¹⁵⁾라고 읊으며 장차 큰 뜻을 품고 국가를 위해 학문으로써 큰일을 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이민족의 침입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고, 기근과 굶주림으로 인해 농민봉기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그의 집안은 父代에 이르러 家門이 몰락됨으로 인해 그가 몸소 농사를 지으며 가족의 생계를 돌보아야 함에 이르자, 그의 청운의 꿈은 사라지고 만다. 그래서 그는 먼저 집안의 가난을 해결하고자 29세가 되던 해에 叔父의 권유를 받아들여 江州의 祭酒 벼슬을 시작으로 13년 동안 다섯 차례의 出仕와 隱退를 반복¹⁶⁾하며 그의 본성에 맞지 않은 벼슬생활을 하느라고 방황과 모순의 갈등¹⁷⁾을 겪었다.

도연명은 막대한 힘과 軍閥을 거느린 劉裕가 군사를 일으켜 수도 建康을 점령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 東晉의 哀帝를 弑害하고 마지막 황제 恭帝를 유폐시켜 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나라를 빼앗아 劉宋을 세우자, 晋代 충신 집안의 자손인 그는 질서와 명분이 사라진 부패한 정치 풍토에서 관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단정하여 晉代에 충절을 표하는 뜻으로 그의 詩題

15) 陶潛 撰, 陶澍 注, 『靖節先生集』卷三四, 「擬古其八」.

16) 도연명의 첫 번째 出仕는 29세 때 江州祭酒, 두 번째는 35세 때 劉牢之의 參軍, 세 번째 출사는 37세 때 桓玄의 幕下가 되었고, 네 번째는 40세 때 劉敬宣의 參軍, 다섯 번째는 41세 때 彭澤令이 되었다.

17) 陶潛 撰, 陶澍 注, 『靖節先生集』卷三, 「辛丑歲七月赴假還江陵夜行塗中」: “商歌非吾事, 依依在耦耕. 投冠旋舊墟, 不爲好爵榮. 養真衡茅下, 庶以善自名.”

陶潛 撰, 陶澍 注, 『靖節先生集』卷二, 「歸園田居其一」: “羈鳥然舊林, 池魚思故淵. 開荒南野際, 守拙歸園田.”

陶潛 撰, 陶澍 注, 『靖節先生集』卷三, 「始作鎮軍參軍經曲阿作」: “望雲慙高鳥, 臨水愧游魚. 眞想初在襟, 誰謂形迹拘, 聊且憑化遷, 終返班生廬.”

陶潛 撰, 陶澍 注, 『靖節先生集』卷三, 「乙巳歲三月爲建威軍使都經錢溪」: “伊余何爲者, 勉勵從茲役. 一形似有制, 素襟不可易. 園田日夢想, 安得久離析. 終懷在歸舟, 諒哉宜霜柏.”

陶潛 撰, 陶澍 注, 『靖節先生集』卷五, 「歸去來辭并序」: “及少日, 眷然有歸歎之情, 何則? 質性自然, 非矯勸所得. 飢凍雖切, 違已交病.”

로 써오던 ‘晉代年號’를 ‘甲子題詩’로 바꾸고,¹⁸⁾ 마지막 벼슬인 彭澤令을 사직한 후 전원으로 歸去來하였다. 그런 후 그는 조정에서 불려도 다시는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¹⁹⁾ 자연을 벗 삼아 農事와 詩酒로써 田園閑居하다가 63세²⁰⁾의 일기로 그의 여생을 마쳤다. 그는 다른 중국의 유명 시인들에 비해 126수²¹⁾라는 많지 않은 시를 남겼지만, 篇篇마다 不朽의 名作으로 중국 田園詩의 龜鑑이 되어 후인으로부터 “은일 시인의 으뜸”²²⁾이요, 田園詩의 개척자라는 칭호를 받고 있다.

한편 도연명은 다섯 차례의 出仕²³⁾ 길에서 방황하였으나, 그가 隱逸觀을 결정적으로 실행에 옮긴 때는 그의 마지막 벼슬인 彭澤令에 부임해서였다. 『宋書·隱逸傳』을 보면, “군에서 감찰관을 현에 파견하자, 현리가 아뢰기를 마땅히 의관을 정제하고 뵈어야 한다 하니, 도잠이 탄식하여 말

18) 『宋書·隱逸傳』: “自以曾祖晉世宰輔, 恥復屈身後代, 自高祖王業漸降, 不復肯仕. 所著文章, 皆題其年月, 義熙以前, 則書晉氏年號, 自永初以來唯云甲子而已.”

19) 陶淵明 著, 張基樞 譯, 『新譯 陶淵明』(명문당, 2002), 30쪽: “도연명은 55세 때 조정으로부터 著作郎이란 벼슬에 초청된 일이 있었고, 62세 때 江州刺史 檀道濟로부터 출사를 요청 받은 일이 있으나 그는 깨끗이 거절하고 보내온 예물을 말끔히 돌려주었다. 다시는 벼슬에 흔들리지 않고 ‘固窮節’을 잘 지켰다.”

20) 도연명의 나이에 대하여는 顏延之의 「陶徵士誄」·『宋書·隱逸傳』·蕭統의 「陶淵明傳」·『晉書·隱逸傳』을 보면 모두 63세로 기록되어 있고, 『南史·隱逸傳』에도 도연명은 元嘉 四年(西紀 427年)에 죽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를 근거하면 도연명은 晉哀帝興寧三年(西紀 365年)에 태어났다. 朱子의 『通鑑綱目』에도 도연명의 출생연대를 元嘉四年이라고 특별히 써서 ‘晉徵士陶潛卒’이라 하여 63세로 확정했다. 그런데도 宋代 張續은 그의 「陶靖節年譜辨正」에서 76세라 했고, 清代 吳汝綸은 그의 「古詩鈔注」에서 51세라고 했으며, 梁啓超는 그의 「陶淵明年譜」에서 56세, 古直은 그의 「陶靖節年譜」에서 52세, 遂欽立은 그의 「陶淵明年譜彙」에서 52세라고 했으나, 나중에 그의 『遂欽立校注·陶淵明集附錄』에서 63세로 고쳐 정하였다. 또 郭銀田은 그의 『田園詩人與陶潛』에서 61세라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도연명의 나이에 대하여 학자들 간의 異說이 紛紜하나, 本稿에서는 舊說인 63세에 따랐다.

21) 方祖燊, 『陶潛詩箋註校證論評』(臺北: 蘭臺書局, 1977), 21쪽: “陶潛의 詩舊說有一百五十首左右, 蓋後代俗本每將陶詩首卷的四言詩一首分作數首, 如將命子詩分作十首, 歸鳥詩分作四首, 這種分法是不大妥當的. 現在依據丁福保陶詩箋注所收的, 計算它的篇目, 除去幾首是他人的作品摻入之外, 還有一百二十六首. 其中除九首是四言詩外, 其餘均爲五言.”

22) 앞의 주8).

23) 앞의 주16).

하기를 ‘내 어찌 다섯 말의 쌀 때문에 촌뜨기 아이놈에게 허리를 굽힐 수 있겠느냐!’라 말하고는 그 날로 관인과 끈을 풀어 놓고는 관직을 떠났으며, 「귀거래」라는 글을 지었다. (郡遣督郵至, 縣吏白應東帶見之. 潛歎曰, 我不能爲五斗米折腰向鄉里小人. 即日解印綬去職, 賦歸去來.)”라는 기록이 있다. 도연명은 당시 彭澤令의 지방 小官吏로서는 상위층의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 그리고 그는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부도덕한 사회에서 녹을 받고 벼슬생활을 하는 것은 선비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벼슬인 彭澤令을 自意에 의해 사직하고 전원으로 돌아가 몸소 논밭을 경작하며, 田園생활의 즐거움을 시로써 읊었다. 특히 그가 지은「歸去來辭」는 그의 위대한 작품으로써 歐陽修가

진에는 문장이 없고, 오직 도연명의 「귀거래사」 한 편이 있을 뿐이다.
(晉無文章, 惟陶淵明歸去來兮辭一篇而已.)²⁴⁾

라고 極讚하였다. 이 작품은 不正과 腐敗, 爭鬪와 非理로 얼룩진 晉·宋年間에 도연명 자신의 田園생활에 대한 情趣와 자기 본연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널리 人口에 膾炙되어 왔다.

도연명은 魏晉時代에 風靡하였던 清談이나 佛家思想 등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에 깊이 물들지 않고 이들 사상을 儒家로 淨化하여 “천하에 도가 있으면 벼슬하고, 도가 없으면 물러나 숨는다. (天下有道則見, 無道則隱.)”²⁵⁾와 “달통하면 나서서 천하를 구제하고, 막히면 할 수 없이 물러나 자신을 착하게 한다. (達則兼善天下, 窮則獨善其身.)”²⁶⁾라는 儒家의 가르침인 隱逸觀에 따라 歸去來하여 玄學과 老莊思想이 만연한 魏晉時代에서 儒家思想에 의해 삶을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²⁷⁾이다.

24) 臺灣中華書局 編, 「李公煥箋註陶淵明集引」, 『陶淵明詩文集評』(臺北: 臺灣中華書局, 1974), 327쪽.

25) 『論語·泰伯篇』.

26) 『孟子·盡心上篇』.

27) ① 도연명은 그의 「雜詩其一」 시에서 “젊은 시절 거둬 오지 않으며, 하루 중에 새벽이 두 번 있기는 어렵다네. 때를 놓치지 말고 부지런히 힘써야 할지니,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 (盛年不重來, 一日難再晨, 及時當勉勵, 歲月不待人.)”라 읊었고, 그의 「神釋」 시에서 “불로장생을 자랑하던 팽조도, 결국 죽어 살아남지 못했노라. (彭祖愛永年, 欲留不得住.)”와 그의 「連雨獨飲」 시에서 “적송자와 왕자교가 신선되었다고 전하나, 지금 그들의 소식 듣지 못하노라. (世間有松喬, 於今定何聞.)”라고 읊은 시구들을 음미해보면, 그는 道家의 不老長生을 믿지 않았고, 神仙世界를 부정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그의 「歸去來辭」에서는 “죽은 후에 천제가 사는 천국에 가서 살 것이라 기대도 하지 않는다. (帝鄉不可期)”라고 하여 佛家에서 말하는 극락세계를 부정하였고, 慧遠法師가 술 마시기를 좋아하는 도연명을 白蓮結社를 하기 위해 술을 대접하겠다고며 東林寺로 초청하였을 때 술을 내놓지 않은데다가 이때 법당 누각에서 종소리가 울리는 것을 듣고는 도연명이 눈살을 찌푸리며 돌아갔다는 故事가 있음을 보면, 도연명은 佛家에도 깊이 심취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연명은 그가 생존했을 당시 魏晉時代에 風靡하였던 道家思想과 佛家思想의 영향을 받았으나, 이들 사상을 儒家思想으로써 淨化하여 儒家의 가르침에 따라 참살을 살아가는 魏晉時代의 대표적 儒家思想家라고 말할 수 있다.

②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철학으로서 윤리나 질서의식에 속한다. 이러한 윤리와 질서의식은 儒家思想과 道家思想 및 佛家思想 등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공공 규범 및 규칙에도 있다. 그러나 사람이 ‘어디서 와서,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는 사회윤리와 질서를 초월한 철학으로서 종교의 범주에 속한다.

도연명은 당시 혼탁한 정치사회에서 현실 적응이 어려움을 느끼고 自意에 의해 전원으로 귀거래하여 스스로 논밭을 경작하며, 詩酒로써 자연을 벗 삼아 신선이나 귀신 및 사후의 세계를 완전 부정하고 儒家의 은일 방식에 따라 自然歸依하였다.

③ 도연명의 歸去來 이념을 따른 우리나라의 학자로서는 고려시대에 본고에서 논술하는 牧隱 李穡을 비롯하여 陶隱 · 圃隱 · 野隱이 있고, 조선시대에 와서는 도연명처럼 성품을 자연을 좋아하여 出仕와 隱退를 20여 차례 반복하다가 마침내는 自意에 의해 벼슬을 사직하고 歸去來하여 陶山書院에 은거한 후 저술과 후진 양성에 힘쓴 退溪 李滉을 들 수 있다. 그리고 首陽大君이 어린 조카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여 왕위에 오르자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금오산에서 우리 나라 최초의 한문소설인 『金鰲新話』등을 저술하고, 만년에는 鍊丹術을 익혀 仙家에도 접근하였지만, 죽을 때는 佛家의 신분이면서 儒家精神에 의해 火葬을 하지 않고 묻혔다가 3년 후에야 佛家의 의식에 따라 화장한 梅月堂 金時習, 높은 학문의 자질이 있으면서 평생 지리산에 은거하여 벼슬을 멀리하고 후진 교육에만 힘 쓴 南冥 曹植을 들 수 있다. 또한 같은 조선왕조에서 他意에 의해 전원으로 貶謫당한 후 「思美人曲」을 짓고 궁중에 다시 입궐하기를 갈망하다가 결국에는 좌의정의 높은 벼슬에 오른 松江 鄭澈이 있으며, 근대에 와서는 3.1독립선언서에 儒家 대표들이 참여하여 서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파리 藏書 사건’을 주도한 心山 金昌淑, 일제 강점기에 끝까지 대한을 조국으로 삼아 변절하지 않았던 爲堂 鄭寅普 같은 분들은 儒家의 가르침인 隱逸觀과 出處觀을 그들의 형편에 맞게 활용하여 실천한 대표적인 儒家思想家들로 꼽을 수 있다.

3.2 牧隱의 出處觀

李穡은 고려가 조선으로 바뀌는 격동기를 당하여 忠義와 節操를 지키기 위해 隱逸한 도연명의 歸去來 이념에서 감명 받은 바가 크고, 도연명의 인품과 생활을 평소에 동경하였다.

그리고는 그의 自號를 “牧에 隱한다”라고 하여 ‘牧隱’이라 하였다. 한편 그가 자신의 호를 牧隱이라고 정한 동기에 대하여 적은 기록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듣기로 은자는 자신의 몸을 감출뿐만 아니라, 또 반드시 이름을 감추며, 이름을 감출뿐만 아니라, 또 반드시 마음을 감춘다 하니,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남이 아는 것을 두려워하여 남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予曰, 吾聞隱者不獨隱其身, 又必名之隱, 不獨隱其名, 又必心之隱, 此無他, 畏人知而不使人知也.)’²⁸⁾

라고 술회하였다. 이 글에서 그는 자신의 호를 牧隱이라고 지은 것조차 마음에 개운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벼슬에 있을 때 ‘隱’자를 그의 호로 책정한 것은 그가 벼슬을 버리고 은일을 꼭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벼슬 중에도 은일한 마음으로 정치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隱’를 사용하였다. 그가 말한 隱의 의미는 鄉村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현실과 완전히 등진 도피적 염세적 태도를 가지지 않고, 현실에 적응하며 은일의 정치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그는 조정이나 鄉村에 있을 때를 막론하고 언제나 山林에 隱居하는 것 같이 생각하였으며, 집 주변에는 작은

④ ‘自然愛好’나 ‘隱逸’은 일반적으로 道家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되지만, 道家의 專用語라고 말할 수 없다. 『論語·先進篇』에 “늦봄에 봄옷이 이미 이루어지면, 관을 쓴 어른 5~6명과 童子 6~7명과 함께 沂水에서 목욕하고, 舞雩에서 바람 쇄고 노래하면서 돌아오겠습니다.(暮春者, 春服既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라는 글이 있는 것을 보아도 ‘自然愛好’는 儒家에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서 보면, “隱逸과 自然愛는 현실적이며 公理의인 儒家思想보다는 超世間的 비현실적인 道家思想에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拙稿, 『尹善道の 自然詩歌와 陶淵明 詩의 비교문학적 고찰』, 東方漢文學 第38輯, 2009, 1293쪽.)

28) 李穡, 『牧隱詩藁』卷1, 「南谷記」.

길을 만들어 소나무와 국화를 심어 忠節을 생각하였고, 내면에는 언제나 은일의 정취를 가지고자 하였다. 그리므로 그는 반드시 전원으로 歸去來 하는 것만이 隱逸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벼슬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不義를 개혁하며 隱逸觀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도연명이 自意에 의해 歸去來하여 은일한 것과는 다른 일면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가 宦官의 자리에 있던, 他意에 의해 은일의 자리에 있던 그의 出處觀은 儒家의 가르침인 “삶도 내가 원하는 바요, 의도 내가 원하는 바이지만,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얻을 수 없을 진댄 삶을 버리고 의를 취 하겠다. (生, 亦我所欲也. 義, 亦我所欲也. 二者不可得兼. 舍生而取義者 也.)”에 의해 정해졌으므로²⁹⁾ 도연명이 儒家의 가르침에 따른 隱逸觀³⁰⁾을 가진 것과 일치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牧隱 李穡은 최영이 이성계에 의해 살해당하자 최영의 뒤를 이어 국무총리에 상당하는 門下侍中의 직책을 맡으므로 彭澤令의 小 官吏인 도연명의 낮은 벼슬과는 달라 전국의 정치 ·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통치의 힘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혼란한 시대에 上古시대의 隱者였던 巢父와 같이 산림으로 영원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後稷과 같이 禮樂을 중흥시키는 것을 자신의 소임으로 생각하였다.³¹⁾ 그러므로 그가 鄉村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당시 이규보 등처럼 불교에 歸依하여 寂滅 · 虛無의 세계를 지향하지 않았고, 功名을 하늘에 맡기고 평생토록 성인이 세운 義理로써 自娛하고자 하였다.³²⁾ 이렇듯 그의 出處觀은 성리학으로 다진 학문을 통해 혼탁한 정치현실을 개혁하고자 그의 의지를 모았다.

그러나 그는 李成桂의 세력에 밀려 개혁의 성취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

29) 『孟子·告子上篇』.

30) “천하에 도가 있으면 벼슬하고, 도가 없으면 물러나 숨는다. (天下有道則見, 無道則隱.)’, 『論語·泰伯篇』. “달동하면 나서서 천하를 구제하고 막히면 할 수 없이 물러나 자신을 착하게 한다. (達則兼善天下, 窮則獨善其身.)’, 『孟子·盡心上篇』.

31) 李穡, 『牧隱詩藁』卷7, 「自詠」: “山林長往無巢父, 禮樂重興在後稷.”

32) 李穡, 『牧隱詩藁』卷18, 「曉吟」: “明知寂滅與虛無, 又不將身向五湖. 終始功名天所賦, 平生義理日爲娛.”

려 억울한 유배를 당하였다. 이런 渦中에서 그는 세상을 버리고 정치에서 물러나 자연에 묻히고자 하는 심정으로 지은 글이 있다.

세상에 자신의 뜻을 성취하지 못하면 반드시 마음으로 고민하게 되는데, 마음을 즐겁게 하는 방법을 구해 보면, 산야에서 자적하여 밤낮으로 스스로를 함양하는 것만한 것이 없다.(不得於世則必悶于心, 求所以娛心之術, 莫如山野之自適, 最昏之自養焉.)³³⁾

위의 글은 벼슬에 뜻을 두었다가 과거에 낙방하여 실의에 잠긴 친구가 정자를 지어 은거한 모습을 보고 李穡이 山野에 歸隱하여 스스로 마음을 즐겁게 지내는 것도 좋다는 뜻으로 지어준 위로의 글이다.

이색이 隱逸을 憧憬하며 읊은 아래의 시가 있다.

老不歸田每自傷	늙어서 전원으로 돌아가지 못함을 매번 스스로 상심하노니
仲冬陰雨亦非常	한 겨울 컴컴하게 내리는 비 또한 평범한 것 아니로다.
夜床燈影吟中冷	밤중 책상 위 등불 그림자 읊조리는 가운데 차갑더니
曉枕簾聲夢裡長	새벽녘 베개에서 들리는 처마 끝 낙수소리 꿈속에 길도다.
元氣底時能得順	원기가 어느 때나 순조로울 수 있을까
殘年何策最爲良	쇠잔한 나이 어떤 계책이 가장 좋을까
抽毫欲寫淒涼意	붓을 들어 처량한 마음 쓰려 하니
深淺須將海水量	그 깊이는 바닷물로 재어야 하겠다. ³⁴⁾

이색은 위의 시에서 벼슬 중에 歸隱하지 못하는 심정으로 번민하였지만, 그는 현실에서의 은일의 실천방법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는 독서를 통해 전원으로 歸隱한 도연명을 “천고의 고상한 선비(淵明千載一高士)”³⁵⁾라고 하여 크게 흠모하고, 그의 出處觀은 도연명이 歸去來하여 몸소 농사를 지으며 현실을 개혁해 나가고자 하는 隱逸觀에서 영향을 받아 더욱 굳게 형성되었다.

33) 李穡, 『牧隱詩藁』 卷5, 「六盆亭記」.

32) 李穡, 『牧隱詩藁』 卷27, 「枕上聞雨」.

35) 李穡, 『牧隱詩藁』 卷12, 「種菊未訖雨又作短歌」.

특히 그가 만년에 실의했을 때 지어진 시들은 自然과 親和하고 歸田하고 싶다는 표현이 대부분이었지만, 실제 은일의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吉再가 恭讓王 2년에 고려가 망할 것을 예측하고 은퇴하면서 그를 찾아가 함께 隱逸하자는 뜻을 전하자, 이색은 “공은 떠날 수 있지만 나는 대신이니 나라와 함께 休處를 같이 해야 하므로 떠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시만 주어서 작별한 것³⁶⁾을 보면, 그 자신은 門下侍中이라는 막중한 위치에서 고려가 망하는 것에 속수무책 할 수 없다는 책무 때문에 歸去來할 수 없음을 밝힌 것이다.

한편 이색은 그가 25세(恭愍王1) 때인 父親喪中에도 上書해서 田制改革 등 정책을 임금에게 건의하기도 한 충신이며, 고려 왕조를 지키려고 애쓴 충절은 후세에도 깊이 숭앙되었다. 그가 門下侍中의 직책에서 물러났을 때 이후의 고려에 대한 충절로

혁명 후 공은 초립 샷갓을 쓰고 흰옷 차림으로 喪에 거하는 服을 하다.
(革命之後, 公常着草笠白衣細條, 爲居喪之服.)³⁷⁾

라는 후세인의 기록은 李成桂의 易姓革命에 동의하지 않고 고려에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錢牧齋가 이색의 忠節에 대하여 쓴 글을 보면,

공민왕이 임금이 아니 된 후부터 정권이 이성계에게 돌아가자 이색은 정몽주와 더불어 창왕을 세워 옹립하고, 사직을 이성계의 손으로부터 찾아서 왕씨의 맥을 잇고자 하였다. 東史에 일컬기를 ‘그가 정몽주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변치 않았으니, 그의 절조가 가히 충성이라 하지 않겠는가!(自玄陵不君, 政歸李氏. 穡與夢周立昌擁, 思奪社稷于成桂之手, 而延王氏一線之緒. 東史稱其與夢周同心不變, 臣節可不爲忠乎!)³⁸⁾

36) 河晦峰, 『東詩話』, 「治隱行狀」.

37) 李壘, 『松窩雜說』.

38) 錢牧齋, 『列朝詩集』 第6, 「李穡」.

라고 하여 李穡의 高麗에 대한 충절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東晉이 劉裕에게 篡奪되어 劉宋이 들어서자 도연명이 彭澤을 사직하고 進賢으로 歸去來한 후 조정에서 著作郎이라는 벼슬을 내려 불러도 다시는 劉裕가 세운 宋에서 벼슬의 뜻을 두지 않은 도연명의 東晉에 대한 忠義와 節概³⁹⁾에 비길 수 있다.

4. 牧隱의 漢詩에 나타난 陶淵明의 隱逸觀

牧隱 李穡은 도연명의 隱逸 이념에 깊이 영향을 받아 그의 시 도처에서 도연명의 은일생활을 동경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색이 도연명의 隱逸 이념을 어떻게 그의 시에 반영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最愛幽居僻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은둔하고픈 성벽으로
林泉興有餘	임천에서의 흥취 넉넉하네.
出門山擁馬	문을 나서면 산이 말을 에워싸고
入室酒浮蛆	방에 들면 술에 고두밥이 뜨네.
園靜宜扶策	동산이 고요하여 산책하기에 마땅하고
窓明快讀書	창이 밝아 글읽기에 좋네.
陶然是眞隱	도연히 참되게 은일하니
何必賦歸歟	어찌 반드시 귀거래를 지을까? ⁴⁰⁾

이색은 이 시에서 비록 歸去來하여 향촌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을 나서면 산이 마을을 감싸고, 방에 들어가면 술이 있으며, 고요한 정원을

39) 張基權, 『新譯 陶淵明』, 서울: 명문당, 2002, 30쪽.: “도연명은 彭澤에서 歸去來한 후 55세 때 朝廷으로부터 著作郎이란 벼슬에 초청된 일이 있었고, 62세 때 江州 刺史 檀道濟로부터 출사를 요청 받은 일이 있으나 그는 깨끗이 거절하고 보내온 예물을 말끔히 돌려주었다.”

40) 李穡, 『牧隱詩藁』 卷5, 「幽居」.

산책하다가 창 아래에서 책을 읽을 수가 있다면, 조정에 몸을 담고 있어도 隱逸의 실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색은 隱逸해야 할 때를 만나면 늘 歸去來하지 못한 것을 自嘲하였지만, 隱逸의 실천은 전원에 꼭 歸居하지 않아도 현실에서 은일의 정취를 찾을 수 있다는 견해는 도연명이 도를 상실한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전원으로 歸隱한 도연명의 결단과는 다른 일면을 보여준다. 이것은 兩人의 벼슬 지위로 인한 책무 역량의 차이로 보아야 할 것이다.

溥署經過少	무더위 다소 지나자
靜居長短吟	조용히 살아가며 시구나 읊조리네.
偶然觀物化	우연히 사물의 변화를 관망하노라니
亦復明我心	내 마음 다시금 새로워지네.
蟻陣跳白雨	소나기 오자 개미떼 분주히 달아나고
鶯梭懸綠陰	찌꼬리는 녹음 속을 오고가네.
吾慮信可愛	내 오두막 정말 사랑스러우이
卽是晉陶潛	이런 게 곧 도연명과 같은 생활일거야. ⁴¹⁾

이 시에서 李穡은 자연 속에서 閑居하는 즐거움을 도연명의 전원생활과 비겨서 흠족하다고 하였다. 그가 실의했을 때나 곤경에 처했을 때 읊은 시를 보면, 도연명의 인품과 생활에 대한 흠모의 정이 잠재의식으로 저변에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 시에서 이색은 자신이 도연명처럼 歸去來를 당장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실의와 좌절을 겪으면서 도연명의 隱逸觀으로부터 慰安을 받고자 하였다.

非才求仕眞如狂	재주없는 이 벼슬을 구하기 참으로 미친 짓
入仕欲隱還如許	仕宦에 들고서 隱逸을 바라는 것은 詐欺와 같으네
非狂非才一良心	미치지 않고 재주 없음이 하나의 양심이라
榮親養親難上下	어버이 빛내고 어버이 공양함은 모두가 어려운 일.
掛冠徑向天東走	벼슬 버리고 오솔길로 천동을 향해 달리니

41) 李穡, 『牧隱詩藁』 卷4, 「夏日卽事」.

自斷此生誰掣肘 스스로 끊은 이 삶 누구 팔을 끌 것인가.
 歸來歸來好歸來 돌아가자 돌아가자 기쁘게 돌아가자
 下有妻孥上有母 아래로 처자를 양육하고 위로는 부모를 봉양하리.⁴²⁾

이 시에서 이색은 복잡한 벼슬길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벼슬길에서 속히 벗어나 부모를 봉양하고 가정의 家長으로서 자식들을 양육하는데 충실하고 싶은 심정으로 도연명이 전원명으로 歸去來한 생활을 연상하며 읊었다.

樂夫天命復奚疑 천명을 감수해 즐긴다면 그 무엇을 의심하고 망설일 것이나
 此老悠然歸居時 이 늙은이 유연히 돌아가 은거할 때
 一點何曾恨枯槁 한 점이라도 야위고 파리해짐 어찌 거들 한 하리오.
 門巷寥寥日月遲 작은 문 골목이 고요하고 일월이 더디더라.
 長嘯白頭吾已矣 긴파람 흰머리가 일찍이 나의 모습
 閉門空讀去來辭 문을 닫고 빈방에서 귀거래사를 읽는다.⁴³⁾

李穡은 이 시에서 「歸去來辭」에 나오는 “천명을 감수해 즐긴다면 그 무엇을 의심하고 망설일 것이나? (樂夫天命復奚疑)”라는 辭句를 원용하여 도연명의 歸去來 정신을 본받고자 문을 닫고 빈방에서 「歸去來辭」를 암송한다고 하였다.

歸去來兮千載人 귀거래사를 지은 일천년 전 사람
 高風當日有誰親 높은 풍도 당일에 누가 있어 친하리.
 中興詩道非他術 시도를 중흥시키는 것 다른 방법이 아니라
 上合天心是此眞 위로 천심에 합하는 것 이같이 참되구나.
 臨水登臯時縱目 물에 임하고 언덕에 올라 때로 눈을 높이 보고
 倚窓入室自怡神 방에 들어가 창에 의지하니 절로 정신이 화평하네.
 直書處土仍書晉 바로 처사라 쓰고 이어서 진이라 쓰니
 綱目明明筆法新 강목이 밝음에 필법도 새로워라.⁴⁴⁾

42) 李穡, 『牧隱詩藁』 卷3, 「歸來」.

43) 李穡, 『牧隱詩藁』 卷24, 「讀歸去來辭」.

위의 시는 이색이 도연명의 「歸去來辭」를 읽은 감흥을 읊은 것이다. 일천년 전 「歸去來辭」의 작가인 도연명과 일천년 후에 태어난 이색 자신은 정신적 교감이 있음을 밝히고, 詩道를 中興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위로 천심과 합하는 것만이 참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인간의 천성과 정서에 바탕을 두고 지어진 시가 오래도록 사람의 마음을 밝게 하고 새로운 감흥을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고 읊었다.

遇興詩成易	흥을 만나 시 쉽게 이루고
求精筆下遲	정교함 구하니 붓 내리기 더디구나.
自甘前輩笑	스스로 선배의 비웃음을 달게 여기니
誰望後人知	누가 뒷사람 알아주기 바라랴.
巖瀆分崩際	큰 산의 물 나뉘어져 무너지는 때이고
川原淨麗時	샘물의 근원은 맑고 깨끗한 때이로구나.
有懷徒耿耿	회포가 있어 오로지 경경하니
彭澤是吾師	팽택령이 바로 내 스승이구나. ⁴⁵⁾

이 시에서 이색은 흥취가 원동력이 되어야 시를 쓸 수 있고,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창작할 수 있으며, 이를 근간으로 작품을 쓸 때 바로 情景와 조화를 이루고 자연경물과 동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도연명이 내 스승이라 하여 도연명의 인품과 생활을 흠모하며 그의 인생을 기탁한다고 읊었다. 이러한 표현은 이색이 도연명의 隱逸觀을 깊게 수용하였음을 알게 한다.

吾生吾自省	내 생애 내 스스로 살펴보니
雙髮鏡中秋	두 귀밑머리 거울 속에 가을이네.
汲汲名兼利	명예와 이익에 급급하고
區區樂且憂	즐거움과 근심에 급급하네.
東坡嘆如寄	동파는 삶이 더부살이 같음을 탄식하고

44) 李穡, 『牧隱詩藁』 卷8, 「讀歸去來辭」.

45) 李穡, 『牧隱詩藁』 卷19, 「遇興」.

彭澤感行休 팽택은 인생의 덧없음 탄식했네.
 風月無涯處 바람 달 끝없는 곳에
 高吟獨倚樓 높이 읊조리며 홀로 누각에 의지하네.46)

이 시는 李穡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며 감회를 읊은 시로 도연명과 소식의 인생살이에 대한 회포를 그 자신에게 견주어 읊었다. 名과 利, 樂과 憂를 상응시켜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색은 시간이 빠르게 흘러 버린 가운데 여태껏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며 名利를 탐하면서 쓸데없이 세월을 보내버린 것을 탄식하고, 도연명과 소식이 세상살이가 덧없고 부질없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 그도 동감을 표시하였다.

彭澤心爲形役 팽택은 마음이 육체에 사역되었고
 昌黎命與仇謀 창려는 운명이 원수와 더불어 모의했는데.
 顏子如愚終日 안희는 종일 어리석은 듯하나
 簞瓢陋巷清幽 단표누항에 맑고 그윽하더라.47)

위의 시는 도연명이 彭澤을 한 것은 부질없이 마음에 수고로움을 끼쳤고, 韓愈의 운명도 또한 술 마시고 잡다히 떠들고, 顏子는 하루 종일 어리석은 듯이 있으나 簞瓢陋巷에서 즐거움을 누렸다고 하여 이 세 사람의 행적을 예로 들어서 각각 人物에 대한 삶을 描寫하였다.

性僻居恒窮 성품이 궁벽하여 항상 궁하게 거처하니
 家貧味罕兼 집이 가난하여 맛을 내기는 드무네.
 陰悲鼎鼎 세월이 빠름을 슬퍼하고
 氣像慕巖巖 기상은 높고 높음을 흠모한다.
 門靜來幽鳥 문이 고요함에 그윽한 새는 날아오고
 簞虛掛冷蟾 처마가 비었으니 찬 두꺼비가 걸렸네.
 秋風吹碧柳 가을바람이 푸른 버들에 부니
 千載憶陶潛 일천년 전의 도잠을 생각하네.48)

46) 李穡, 『牧隱詩藁』 卷17, 「吾生」.

47) 李穡, 『牧隱詩藁』 卷7, 「卽事其一」.

이 시의 전반부에서 李穡은 자신의 궁벽한 생활 모습을 묘사하고 “鼎鼎”과 “巖巖”이라는 疊語의 사용으로 節奏의 美가 있게 음악성 있는 표현을 하였다. 후반부는 쓸쓸한 자신의 집 뜨락 모습을 쳐다 보고 일천년 전에 ‘固窮節’로써 선비의 志操를 지키며 생활한 도연명의 은일자세를 회상하며 읊었다.

淵明天地闊無涯	연명의 천지는 끝없이 넓어
弄月吟風氣自華	음풍농월 시 지으며 기개 절로 빛내었네.
一點苦心磨不盡	한 가지 고심한 건 끝없는 연마일 뿐
歸來何處是吾家	돌아오니 그 어디나 나의 집일세. ⁴⁹⁾

이색이 고려의 社稷을 李成桂의 易姓革命으로부터 수호하려다가 도리어 그들 일당으로부터 유배를 당하였을 때 지은 시다. 이때 이색은 자신의 처지를 도연명의 귀거래에서 위안을 받고자「淵明」이라는 詩題로 지은 것이다. 도연명이 자기 의지로 귀거래한 것에 반하여 자신은 도연명과 달리 타의에 의한 귀거래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하더라도 평소 도연명의 隱逸觀을 동경하며 생활하여 왔기에 자신의 타의에 의한 歸去來가 도연명에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표현하였다.

5. 結語

本稿는 牧隱 李穡의 漢詩에 나타난 陶淵明의 隱逸觀에 대한 연구로서 그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隱逸’은 원래 道家에서 나온 말로 속세를 멀리하여 조용한 산속에

48) 李穡, 『牧隱詩藁』 卷9, 「記舊作」.

49) 李穡, 『牧隱詩藁』 卷6, 「淵明」.

들어가 자기 수양으로 神仙의 경지에 이른다는 의미로 쓰였다.

2. 儒家에서는 선비가 정치·사회의 혼란에 처해 있을 때 “천하에 도가 있으면 벼슬하고, 도가 없으면 물러나 숨는다. (天下有道則見, 無道則隱.) 『論語·泰伯篇』” “달통하면 나서서 천하를 구제하고 막히면 할 수 없이 물러나 자신을 착하게 한다. (達則兼善天下, 窮則獨善其身.) 『孟子·盡心上篇』”라는 隱逸觀으로 활용하였고, 또한 孟子는 달리 ‘隱逸’이 仁義와 결부되어 힘이 감당할 경우 “삶도 내가 원하는 바요, 의도 내가 원하는 바이지만,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얻을 수 없을 진댄,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하겠다. (生, 亦我所欲也. 義, 亦我所欲也. 二者不可得兼. 舍生而取義者也.) 『孟子·告子上篇』”라고 선비들의 出處觀에 대해 언급하였다.

3. 도연명이 활동하던 때의 시대배경을 살펴보면, 東晉의 왕실이나 士族들의 세력이 약화되고 차츰 무력적 신흥 군벌들의 대두로 서로 각축을 다투어 군벌세력에 의해 사회가 좌우되었습니다. 이때 외부로부터는 이민족의 침입, 내부에서는 농민봉기 등이 끊이지 않아 국가사회와 백성들의 생활은 문자 그대로 도탄에 빠져 허덕이고 있었다.

4. 도연명은 彭澤令이라는 낮은 小官吏로서 당시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부정부패가 만연된 사회에서 녹을 받고 사는 것은 선비의 처신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성품과 어긋난 벼슬길을 떠나 “천하에 도가 있으면 벼슬하고, 도가 없으면 물러나 숨는다. (天下有道則見, 無道則隱.) 『論語·泰伯篇』” “달통하면 나서서 천하를 구제하고 막히면 할 수 없이 물러나 자신을 착하게 한다. (達則兼善天下, 窮則獨善其身.) 『孟子·盡心上篇』”라는 儒家의 가르침인 隱逸觀에 의해 전원으로 歸去來하여 詩酒로써 자연을 벗 삼아 몸소 논밭을 경작하고, 전임 지방의 小官吏로서 주위 농민들에게 농사를 권장하는 勸農詩를 지으며, 田園閑居 하였다.

5. 牧隱 李穡이 살았던 시대는 중국에서는 元나라를 이어 明나라가 들어서고, 우리나라에서는 高麗와 朝鮮의 易姓革命이 이루어진 역사적 전환기였다. 이 시기에 李穡은 정치적·사상적·문학적으로 고려 말기를 대표하는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인물이었으며, 이 땅에 性理學의 뿌리를 내

린 고려 儒學의 으뜸으로서 麗末·鮮初 유학사상의 커다란 흐름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李成桂가 위화도 回軍 후 그는 門下侍中이 되어 “삶도 내가 원하는 바요, 의도 내가 원하는 바이지만,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얻을 수 없을 진댄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하겠다.(生, 亦我所欲也. 義, 亦我所欲也. 二者不可得兼. 舍生而取義者也.) 『孟子·告子上篇』”라는 儒家의 가르침인 出處觀에 의해 禡王과 昌王을 등극시키는 데 큰 공로를 하였고, 明의 도움을 받아 이성계를 퇴출시켜 고려의 왕권을 수호하고자 하였지만, 오히려 역부족으로 이성계의 세력에 의해 배척을 받아 유배생활을 하였다. 李穡이 고려 왕실의 충성스런 신하임을 표명하고 이성계 일당과 손을 잡지 않은 것은 도연명이 東晉의 충신 집안 子孫으로서 劉宋이 들어서자 晉代의 忠節을 나타내기 위해 그가 써 오던 ‘晉代年號’를 ‘甲子題詩’하고⁵⁰⁾, 그의 마지막 벼슬인 彭澤丞을 사직한 후에는 劉宋의 조정에서 벼슬을 주어 불러도 다시는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田園歸居한 도연명의 忠義와 節操에 비길 수 있다.

6. 兩人은 일천 년이라는 공시적 시대 차이가 있고, 서로 다른 국가의 정치·사회 현실의 통시적 정황에서 도연명은 자신의 신분에 적합한 儒家의 가르침인 隱逸觀으로 歸去來하였고, 목은 이색은 門下侍中の 높은 벼슬의 위치에서 고려 왕실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로써 도연명의 인품과 생활을 흠모하며 儒家의 가르침에 의한 出處觀을 실행하였다.

7. 결국 兩人의 隱逸觀과 出處觀은 道家思想이나 佛家思想에 의해 성립된 것이 아니라, 儒家思想에 바탕을 두었다는 점에서 兩人의 同質性을 발견할 수 있다.

50) 앞의 주18).

참고문헌

- 『高麗史』, 韓國學文獻研究所編,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2.
- 『十三經注疏』, 臺北: 藝文印書館, 1976.
- 『辭海』, 臺北: 中華書局, 1977.
- 『抱朴子』, 서울: 新華社, 1983.
- 河晦峰, 『東詩話』, 彰文閣, 1979.
- 林熒澤, 『韓國文學史의 視覺』, 창작과 비평사, 1984.
- 李穡, 『牧隱詩藁』, 高麗名賢集3,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86.
- 陶淵明 著, 車柱環 譯, 『韓譯 陶淵明全集』,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 _____, 張基權 譯, 『新譯 陶淵明』, 서울: 명문당, 2002, 30쪽.
- 臺灣中華書局 編, 「李公煥箋註陶淵明集引」, 『陶淵明詩文集評』,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4, 327쪽.
- 陶潛 撰·陶澍 注, 『靖節先生集』, 臺北: 華正書局, 1975.
- 九思叢書編輯部 編, 『陶淵明研究』, 臺北: 九思出版社, 1977.
- 方祖燾, 『陶潛詩箋註校證論評』, 臺北: 蘭臺書局, 1977, 21쪽.
- 楊家駱 主編, 『漢書』, 臺北: 鼎文書局, 1980.
- _____, 『後漢書』, 臺北: 鼎文書局, 1980.
- 柳廣眞, 「牧隱 李穡의 詩文學 研究」, 誠信女子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2.
- 朴熹, 「牧隱 李穡의 詩文學 研究」, 世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3.
- 金賢淑, 「陶淵明의 田園詩 研究」, 仁荷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5.
- 鄭載喆, 「牧隱 李穡 詩의 研究」, 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6.
- 河祥奎, 「韓國 自然詩歌에 끼친 陶淵明의 影響」, 東亞大學校 博士學位論

文, 1996.

柳浩珍, 「李穡 詩 研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9.

拙稿, 「尹善道の 自然詩歌와 陶淵明 詩의 比較문학적 高찰」, 『東方漢文學』 第38輯, 2009, 1293쪽.

투고일 : 2009년 12월 1일, 심사 : 2010년 1월 11일~25일, 게재확정 : 2010년 2월 1일

<Abstract>

A Study on Tao Yuan-ming's View of Seclusion in Mok Eun Lee Saek's Chinese Poems

Kim, Jou-soon

Tao Yuan-ming lived in Wi Jin period which was the most confused and darkest in Chinese history and Lee Saek lived in the turbulent period which moved from Koryeo to Choseon period. In spite of these changing social situation, both of them were absorbed in literature.

Although Lee called himself 'Mok Eun' because he wanted to live a hermit life, he didn't have pessimistic attitude to escape from real life. While Tao had the desire to escape from poverty and Lee Saek had the motivation and patriotism to cope with turbulent period, they soon realized the sense of futility and returned to nature due to their nature-friendly disposition.

Lee also reflected Tao Yuan-ming's love for a chrysanthemum in his poem by comparing a mum which sends forth a sweet fragrance till withering with the symbol of a hermit and a noble scholar.

Although Lee showed the opposite aspect with Tao Yuan-ming in that he had the desire about political power and finally became a high-ranking official, they have something in common about confucian philosophy of going into government service because Lee had a strong passion about administrating the state to relieve the people's suffering according Mencius' phrases while Tao Yuan-ming feel depressed about usurpation the throne from Jin dynasty to Song dynasty and determined to return to home and nature.

Lee thought the valuable life doesn't lie in life with materialism but lies in life with returning to home and reflecting himself. He became lost in thought

like this after watching chaotic situation in late Koryeo period.

Key words : Seclusion, the most confused and darkest, the turbulent period, a hermit life, real life, nature-friendly disposition, materialism